

동국대, 화합으로 제2건학을

내년 개교 100주년, 추락한 위상·학내 갈등 극복없이 '설립 원력' 못살려

5월 8일로 동국대(총장 홍기삼)는 개교 99주년을 맞는다. 개교 100주년을 꼭 1년 앞두고 있는 조계종 종립대학 동국대. 그러나 지금 동국대는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불교계 선각자들의 원력으로 근대 민족교육을 이끌어온 대학의 100주년을 앞둔 모습은 잔치분위기라고 하기엔 너무도 초라하다.

외부기관의 대학평가 순위는 해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고, 100주년 기념사업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불자들의 염원인 일산불교병원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3년을 끌다 이제야 개원을 앞두고 있다. 불교대학의 정체도 심각하다. 한국 불교학의 총본산이라는 동국대 불교대학의 학문적, 조직적 폐쇄성은 늘 학교 바깥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교수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학교당국과 교수회의 갈등도 위헌 수위를 넘었다. 이사회내 각종 의혹들을 문

제 삼은 감사와 이사가 총장, 이사장을 고발하면서 동국대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2002년 24위, 2003년 30위, 2004년 37위로 매년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는 평가기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여건과 재정' 부문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단 전입금이나 발전기금이 거의 없이 등록금에만 의존하는데 주요인이었다.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 100주년 기념사업도 문제다. 궁극적으로 불교계와 동문, 학생, 교직원들 하나를 묶어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무리다.

일산불교병원은 그나마 개원 준비를 마쳐가고 있지만 1000억원이 넘는 개원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교대학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활동에 들어간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영담)는 기대와 달리 불교대학 교수들의 냉담한 반응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처럼 동국대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초래한 근본적인 책임은 재단 이사회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04년 재단 이사장 선출을 놓고 벌인 이사회 내의 주도권 싸움은 급기야 지난해 8월 일부 이사와 감사가 각종 비리의혹을 제기, 총장과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학교는 큰 상처를 입었고, 이사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년 전 구국구세 역력으로 세운 종립대학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단과 재단은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지원만 책임지고, 대학은 총장의 책임 아래 과감하고 투명한 경영을 이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구성원들도 이해관계 보다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제2건학의 자세로 근본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꽃배지 달고 이웃과 함께해요” “자비연꽃 배지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기쁘요” 본사와 조계종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비연꽃달기 캠페인에 동참한 서울 동대부속여고(교장 박명순) 학생들이 4월 28일 교정에서 친구들에게 연꽃배지를 선물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자비연꽃달기기는 7월 20일까지 계속된다. 관련기사 10면

“오늘의 불사문화 건강한가?”

전통조각회·본사, 6일 세미나 개최

경제논리에 치우쳐 신앙·예술적 가치가 간과되고 있는 오늘날 불사(佛事)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세미나 ‘불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재조각회(회장 한봉석, 이하 조각회)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 공동주최로 5월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정영호 단국대 박물관장의 ‘불사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오늘의 과제’,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의 ‘예술로서의 불사, 그 바람직한 방향’,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의 ‘신앙으로서의 불사, 그 바람직한 방향’이 발표된다. 또 정재훈 전통문화예술학교 석좌교수는 ‘한글불사, 상생의 가르침 담아내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논평 및 토론에는 최기영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박찬수 목아불교박물관장, 김광봉 박사(조계종 교육원 상임연구원), 서재영 박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참가한다.

本社 5월부터 청운동에서 업무

전화·팩스 그대로... 책방 여시아문 임시 휴점

현대불교신문사는 건물 신축완료로 2005년 5월부터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소재 상호신문은행연수원 건물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현대불교는 새 보급자리에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언론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불교정보의 총본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무공간의 이전과 관련, 부득이 책방 여시아문은 당분간 휴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여시아문(www.yosiamun.com)과 통신판매(02-737-0695, 팩스 02-737-0696)로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며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구 상호저축은행연수원)
●전화·팩스: 기존의 번호 그대로
●대표: (02) 737-8881
●편집국: (02) 722-4162-3

●약도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범보시’ 용으로 보급

염불은 거룩한 부처님의 명호와 말씀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외워 간직하고 숭앙함으로써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이 보다 높은 열림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의 방편입니다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성(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염불 형태로 널리 불리어졌던 아름다운 곡입니다. 염불 정진하여 고행(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노래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 완역하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인연을 맺도록 널리 보급합니다. 범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승고한 신심을 지켜 가지기 바랍니다. 보급 문의 (02)737-0695.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스크린세이버 무료 보급

- * 컴퓨터 모니터상에 봉축 사진과 그림, 법문을 담은 스크린세이버를 설치해 부처님오신날의 침묵과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 내용 : 부처님 생애(팔상성도), 테마봉 축행사, 경전 및 스님법 범어

www.buddhapia.com / www.buddhanews.com에서 다운 가능

간화선 대중화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법주: 진제 스님 / 5월 7일 오후 2시 범어사

※회향식 및 무차법회를 buddhanews.com에서 실시간 중계합니다.

‘할’

짐은 쇠달구지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몸은 누군가 송장처럼 끌고 다니는놈이 있어... 이몸이 누구인고?

그림·조태호

원용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24·25면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황금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중 등 팔모조립등 만월등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792-6288, 794-4055 / 전승: 031)794-6288
경기도 하남시 춘곡동 180-1
찬덕홈페이지: www.chanduk.com 인클홈페이지: 찬덕연등
e-mail: chanduk21@hanmail.net

광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